

- 예술의 구분 -

시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과 공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

- 시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은 문학, 음악, 무용이고 , 공간의 형식을 따르는 예술은 회화, 조각, 건축이다.

- 예술적 진리에 대한 입장 -

어떤 그림이 훌륭한가

- 세부적인 미술의 역사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의 세 측면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 ‘고전주의’로 대표되는 예술사조는 이성을 통해 그림을 그리려는 화풍이다. 조화, 균형, 비례, 법칙을 강조한다. 그런면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절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화풍은 개인의 내면과 개성을 존중해 화가의 주관적 표현 방식을 중시하고 격정적이고 정서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면에서 절대적 진리에 저항하는 상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 현대 미술은 그 폭이 너무나 넓고 다양해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예전 것들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추구로 압축해볼 수 있다. 현대 미술은 회화의 내용적인 측면부터 형식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현대 미술은 과거 예술에 대한 해체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회의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 고대 미술 -

그리스 미술, 헬레니즘, 로마 미술

- 1만 5천년 전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나 조각품들은 주술적인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미술적 형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욕망을 기원했다. 다산을 기원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그 예라 하겠다.
- 이집트의 벽화, 피라미드, �핑크스등은 영원성을 반영한 종교적 미술 작품의 예다.
- 그리스인들은 원근법이나 수학적 비례를 사용하여 조화와 안정을 작품에 반영했다. 물론 그들 역시 신화의 신들을 소재로 했지만, 이것은 이전의 종교적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이집트인들이 예술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신의 속성으로서의 영원성이었다면, 그리스인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들은 조화와 균형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그리스에 와서 예술은 독자적인 가치로서 목적 그 자체였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미술작품은 조각이나 건축에서 성과가 컸다. 파르테논 신전이나 에렉테움 신전이 이를 대표한다.
-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건설된 대제국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을 번역하면

‘그리스 문화와 같은 문화’ 정도가 된다. 그의 대제국 건설로 인해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혼합되었고, 교류와 융합을 거쳐 새로운 미술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헬레니즘 미술의 특징이 된다. 헬레니즘 미술은 그리스의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동양적인 특성도 반영했다. <라오콘>, <사모트라케의 니케>, <밀로의 비너스>등이 대표적이다.

•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의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국제적 성격을 띤 미술로 확장했다. 건축으로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로마의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판테온 신전이 남아 있다.

- 중세 미술 -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 로마네스크, 고딕

•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추구했던 그리스·로마 미술은 중세가 되면서 자취를 감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중세 초기의 환경적 요인이 있다. 중세 초기 500년간은 전쟁과 약탈이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기였다. 두 번째 이유는 내적인 측면으로서 그리스도교의 탄생 배경과 관련된다.

• 그리스도교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은 종교와 관련되지 않은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술은 교리 전달의 보조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었다. 다만 중세 후기에 이르러서는 교회 건축 발전과 함께 예술이 미약하게나마 발전할 수 있었다.

• 중세 초기의 미술은 단지 문맹자들에게 신의 섭리와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 교회는 신, 영원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데 미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대표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는 ‘카타콤베 벽화’가 있다.

• 11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교가 유럽 전역을 장악하자 거대한 교회 건축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건축술과 예술도 함께 발전한다. 이 당시 건축과 미술 양식을 로마네스크라고 한다. 로마네스크는 웅장한 교회 건축을 위해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을 도입하면서 이름 붙여졌다. 단단하고 육중한 모습의 석조 건물인데 하나의 성처럼 보인다. 특히 가장 높은 탑의 지붕이 둥글게 돔형을 이루고 있는게 특징인데, 이는 동방과의 잦은 전쟁으로 이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까닭이다. 대표적 건축물로는 이탈리아 피사의 대성당이 있다.

• 12~13세기는 고딕 양식이 유행했다. 천장이나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과 골격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벽의 두께는 얇아졌고, 높고 아찔한 첨탑들이 들어섰다. 큰 창문들 내게 되고 스테인드글라스가 크고 화려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 건축물로는 파리의 사르트르 대성당, 노트르담 대성당, 한국의 명동 성당 등이 있다.

- 르네상스 미술 -

르네상스 양식, 바로코, 로코코

• 왕과 영주들과 대립하면서 성장한 부르주아는 새로운 생산수단으로서 공장을 소유하면서 물질적 측면에서 권력 기반을 확보했으나, 정신적 측면에서는 아직 종교에 종속되어 있었다. 부르주아는 신을 대체할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탐색했고, 결국 인간의 이성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 부르주아가 인간 이성의 회복을 위해 지향한 문화는 중세 이전의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였다.

• 르네상스는 ‘부활’ ‘다시 태어남’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부활과 재생은 고대 문화의 부활과 재생을 말하며, 동시에 인간적 가치의 부활과 재생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이 문예 부흥운동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다만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났던 르네상스는 과도기적 측면이 컸다. 중세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종교적 측면에서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의를 도입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가시적인 계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중세와 근대 사이에 르네상스가 있어서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가 시도되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 때문인지 실제로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도 화풍은 고대의 전통을 따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소재를 활용하는 등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
- 르네상스 초기의 화가들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체를 묘사하려 노력했고, 정확성에 치중했다. 그러나 화면 속의 개별 대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반면에 그림 전체의 조화로운 구성에는 아직 소홀했다. 대표작으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있다.
- 전성기의 르네상스 미술은 이성적 규칙을 통한 객관적인 정확성을 토대로 창작되었고, 동시에 조화와 균형이라는 미의 이념이 이상적으로 구현되었다.
- 원근법은 두 종류가 있다. 선원근법과 공기원근법이다. 공기 원근법의 대표작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동방박사의 예배>, <최후의 만찬> 등이 있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회화에 집중한 반면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집중했다. 대표작으로 <피에타>, <다비드상>, <모세상> 이 있다. 회화로는 <시스티나의 천장화: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이 있다.
- 르네상스 미술은 교회에 종속되어 있던 수단으로서의 예술에서 벗어나,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처럼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성적으로 완벽함과 조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인 보편의 미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르네상스 미술은 절대주의의 측면을 갖는다.
- 전성기를 구가하던 르네상스 미술은 17세기가 되면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규칙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에 직면한다. 이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하는 상대적인 화풍이 등장한 것이다. 이를 '바로크'라고 한다.
- 14~16세기의 르네상스 미술 이후 17세기와 18세기는 각각 바로크와 로코코의 시대였다. 르네상스 미술이 이성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바로크와 로코코는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 사조였다. 다만 바로크는 무겁고 어두운 반면 로코코는 밝고 가볍다는 차이가 있다. '바로크'는 포르투갈어로 '비뚤어진 진주'라는 뜻이다.
- 르네상스 미술이 고전적인 균형과 조화의 세계를 표현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바로크는 유동적이고 강렬하며 장식적인 예술을 추구했다. 대표작품으로는 카라바조의 <홀로페르네스>, 목을 치는 유디트>가 있다. 강렬한 명암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바로크 화풍은 루벤스에 이르어 정점을 이루었다. 루벤스의 대표작품으로 <십자가를 세움>, <십자가에서 내려지심> 등이 있다. 이외에도 램브란트와 벨라스케스 등의 화가들이 이 시대를 주도했다.
- 18세기가 되면 바로크의 감성적 측면을 이어받지만 그 표현의 무게감과 강렬함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섬세하며 에로틱한 로코코가 등장한다. 로코코는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전 유럽에서 유행했는데,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무렵 왕권이 약화되고 부르주아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예술가들도 왕실을 위한 그림보다는 부르주아나 귀족이 향유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그림은 부르주아와 귀족의 주거 장식을 아늑하고 감미로운 동시에 에로틱한 감성의 밝은 화풍이 주를 이룬다. 대표작품으로는 부세의 <비너스의 화장>, <아침 식사> 등이 있다.

- 초기 근대 미술 -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 초기 근대미술은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다. 로코코의 감성적이고 유약하며 여성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이 다시 예전의 고대 미술이나 르네상스의 이성적이고 강인하며

남성적인 모습으로 회귀를 낳은 것이다. 이들은 예술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로 돌아가자고 했기에 '신고전주의'로 불린다. 예술사에서는 이성과 감정,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 신고전주의의 이성 추구에 반대해서 다시 낭만주의가 인간의 감성을 앞세우며 등장한다.

초기 근대미술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결이다.

-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로코코의 퇴폐미에 대한 저항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시 프랑스로 수용되어 절정을 맞이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다. 국가 주도의 의도적인 확산에 그 원인이 있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프랑스 로코코의 향락적 분위기에서 엄숙하고 계몽적이며 애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화가를 양성했다. 국가적 전시회인 살롱전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품은 언제나 성경, 신화, 고대사 등을 다루는 역사적 작품이었다.

- 신고전주의의 대표화가 다비드의 작품으로 <마라의 죽음>, <호라티우스의 맹세>,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이 있다. 다비드는 개별 인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안정적인 배치로 고전주의적인 안정감과 비율, 조화를 훌륭하게 드러내고 있다. 앵그르는 여성을 그려내는 천재적인 소묘 능력과 미적 탁월성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후 회화에서 남성 누드는 거의 사라지고 여성 누드가 프랑스 예술계를 지배했다. 대표작으로 <그랑 오달리스크>, <샘>, <터키 욕탕> 등이 있다.

-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의 이성적이고 엄숙하며 절대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창작자의 주관과 표현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공상과 환상의 세계를 그림의 대상으로 하였다. 작가의 주관적 해석과 내면의 감성을 중시하는 까닭에 낭만주의는 자연스럽게 작가의 천재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격정적이고 창백하며 고뇌로 가득 찬 전형적인 천재의 이미지는 이때 확립된다. 대표작품으로는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 등이 있다.

- 후기 근대 미술 -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 사실주의는 낭만주의가 보여주는 극적이고 과장된 미적 양식에 대한 저항으로 탄생했다.

사실주의는 사실적 그림을 그리기를 요구했다. 여기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똑같이 그려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릴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남루한 현실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남루한 삶이나, 옆집의 가난한 이웃, 노동의 고됨을 가감 없이 묘사했다.

대표작으로 쿠르베로의 <오르낭의 매장>, <돌 깨는 사람>, <화가의 아틀리에>, 아이작 브로드스키의 <1920년 5월 5일, 노동자의 붉은 군대를 향해 연설 중인 레니> 등이 있다.

20세기가 되면 사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정치 이념을 대변하게 된다.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확산하는 창작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당시의 사실주의는 예술에서 배제되었던 일상을 예술의 소재로 데뷔시켰고, 예술계와 대중에게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고민하게 했다.

- 19세기 말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탄생한 인상주의도 사실주의처럼 낭만주의의 비현실적이고 과장적인 화풍을 거부하고 일상적인 삶과 자연을 그려내려고 했다. 인상주의자들이 하고자 했

던 일은 개념이나 이념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었다.

대표작품으로는 모네의 <인상, 해돋이>, <수련 연작>, <일본식 정원>, <루안 대성당>등이 있다. 이 시대에 인상파로 분류된 화가들로는 마네, 르누아르, 드가, 로댕등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전기 인상주의로 불린다.

- 전기 인상주의 단계를 거쳐 독자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주의를 넘어서려고 노력한 화가 집단을 후기 인상파라고 부른다. 이들은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그림을 그렸다. 후기 인상파의 화가로는 고흐, 고갱, 세잔등이 있다. 특히 고흐는 삶의 처절함과 그림의 독특하고 화려한 색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화가들 중 미술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인물은 세잔이다.

- 세잔은 근대를 마무리하고 현대 미술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처음에 세잔은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사물의 형태보다는 순간적인 빛의 변화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세잔은 사물의 형태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물들에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형태를 찾아내려 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정물화>, <목욕하는 사람>, <카드놀이 하는 사람>, <생 빅투아르 산>등 있다.

세잔은 사물을 반복해서 관찰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시각이 조정되기 전의 상태를 하나의 화폭에 구성하였다. 세잔은 의도적으로 관점을 어긋나게 해서 그렸는데 그가 정말로 그리고자 한 것이 순간의 인상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세잔은 인상파와 결별한다. 인상주의가 순간적인 이미지를 빠르게 그릴 때 당연히 전제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단일 한 시선이다. 인상주의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그림은 한 명의 화가의 관점에서 본 1인칭의 세계를 그린다. 이때의 주인공은 화가가 된다. 회화는 화가 중심의 세계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세잔이 그리고자 한 것은 사물 그 자체의 본질로, 그림의 주인공은 사물의 본질이 된다. 생각해 보면 실제 사물은 관찰자의 시선과 독립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세잔이 생각할 때 그림에 존재하던 화가의 단일한 시선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구성적 측면에서의 사물의 형태였다. 그래서 세잔의 그림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관측된 대상들이 동시에 하나의 화폭에 그려진 것이다. 세잔의 이러한 선구적인 작업은 후에 현대 입체파와 추상미술을 탄생하게 함으로써 현대 미술이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현대 미술 -

입체파와 추상미술

- 후기 인상주의 이후 20세기가 되면,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형식과 예술 철학들이 다채롭게 발생한다. 고흐와 고갱의 원색적인 색채와 화가 내면의 강렬한 정신은 각각 야수파와 독일의 표현주의로 발전하고, 세잔의 사물을 분석하고 하나의 화폭에 두 개 이상의 시점을 한번에 담아내는 표현 방법은 입체파로 계승된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영미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까지 현대 미술은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발전해나간다.

- 현대 미술에서 입체주의와 추상 미술은 매우 중요한 두 사조가 된다. 이들은 새로움에 대한 시도로서 예술의 '대상'을 새롭게 분석해서 제시하거나, 혹은 아예 제거했다.

- 큐비즘이라고도 부르는 입체파는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 운동이었다. 후기 인상주의의 화가인 세잔이 사물의 기하학적 분석과 다양한 시점의 적용을 도입한 이래로, 이를 계승하

고 발전시킨 것이 큐비즘이다. 대표작가로 피카소가 있고 그의 작품으로 <아비뇰의 처녀들>, <게르니카> 등이 있다.

• 20세기 무렵 아예 그림의 대상을 그림에서 제거하는 추상미술의 화풍이 탄생했다. 추상미술의 탄생으로, 미술은 이제 구상미술과 추상미술로 구분되었다. 대표작가로 러시아 출생의 칸딘스키다. 그는 실재하는 대상을 화폭에서 완벽하게 제거하고, 색의 덩어리와 단순한 선과 면으로 시각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색이 영혼의 떨림을 준다고 말할 정도로 대상을 제외한 순수한 추상이 인간의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표작으로 <노랑 빨강 파랑>이 있다.

추상미술은 세계대전 동안은 주춤하다가 1940년대 이후가 되면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로 발전하여 현대 미술을 주도한다.

- 오늘날의 미술 -

예술의 주체를 흔들다

• 우리는 현대 미술의 주요한 두 화풍으로서 입체주의와 추상미술을 살펴보았다. 이 두 회화 양식은 기존의 미술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이란 회화의 대상에 대한 변화와 소멸이다. 미술의 역사에서 새로움을 찾는 시도는 언제나 미술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대상의 선택과 표현의 역사가 미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상이 없어진 세계에서 아직 그림을 그리는 주체는 남아 있다. 현대 예술가들은 그동안 작품 밖에 머물고 있던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화가'를 예술작품의 일부로 끌어 들인다. 오늘날의 미술은 미술의 주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주체를 흔드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방법은 퍼포먼스 형태(예: 액션페인팅)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주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자동 기술법, 자동묘법). 자동 묘법은 이성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무의식적인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방법은 주체를 집단화하는 것이다.